

공연전시 소개

문화예술전문매거진 <THE MOVE>와 함께 하는

이 달의 추천 공연 4

1 1800년대 스페인 세비야로~! 자유로운 사랑을 갈구하다 G. Bizet 오페라 <카르멘 Carmen>

1875년 3월 3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이 처음 상연되었을 때, 일반 관객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오페라 코미크 극장은 대체로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오락용으로 즐길 작품들을 찾았고, 이러한 작품들이 주로 상연되었는데, 낮은 계급의 집시들이 등장해 거친 삶과 혈투가 벌어져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 눈살을 찌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르멘의 음악은 이 작품을 감상한 당대 많은 예술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특히, 관현악과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원작 소설 카르멘의 첫 페이지에는 5세기 그리스 시인이었던 팔라다스의 경구가 적혀있다. “모든 여자는 쓸개즙처럼 쓰다.



하지만 달콤한 순간이 둘 있으니 하나는 침대에 있을 때고 다른 하나는 죽었을 때다.”

당시에 대중들에게는 외면당한 <카르멘>이 이후 가장 대중적인 오페라로 각광받게 되는 데에는 주인공의 캐릭터에 대한 매력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사회의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집시여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카르멘의 치열한 삶은 원초적

인 자유와 절망이었기에 더욱 매혹적이다. 카르멘은 오페라사에서 최초로 남성을 지배하고 쥐락펴락하는 당당한 여주인공의 탄생이다. 사랑은 변덕스런 새, 아무도 나를 길들이지 못해'라고 당당히 말한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매혹 그 자체이다. 또한, 4명의 주인공들은 각기 다른 사랑을 통해 가치가 충돌하고, 이교도와 기독교, 도덕과 부도덕, 순수함과 퇴폐스러움 등으로 상반된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갈등.. 그리고 복수.. 살인을 통해 불꽃같은 에너지가 생겨난다. 대개 오페라의 여주인공은 남자에게 종속당하는 청순가련형이거나 비련의 여인이었다. 하지만 카르멘은 오페라사에서 최초로 남성을 지배하고 쥐락펴락하는 당당한 여주인공의 탄생이다.

2019 솔오페라단 <카르멘>

이번 가을, 솔오페라단의 '2019 <카르멘>'은 이탈리아 무대 디자이너 자코모 안드리코의 무대디자인과 잔도메니코 바카리의 연출이 함께 어우러져 하얀색 회벽으로 세워진 1800년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세비아 지방으로 초대한다. 출연 성악가로는 유럽 전역에서 최고의 카르멘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세피나 피운티와 한국을 대표하는 메조 소프라노 추희명이 극 중 '카르멘' 역을 맡았다. 스페인 출신의 테너 세르지오 에스코바르, 바리출신의 테너 다리오 디 비에트리, 이 이외에 벨그라도 국립극장의 주역가수 이반 토마세프와 이탈리아의 레온카발로 콩쿨의 부상으로 발탁된 소프라노 황진아, 소프라노 김은희, 바리톤 우주호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 알베르토 베로네지와 프라임오케스트라가 만들어 낼 하모니도 기대된다. 1800년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세비아 지방 마을에서 매혹적이고 정열 넘치는 카르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11.15-16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 '미래와 꿈의 공예-몽유도원이 펼쳐지다' _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2019청주공예비엔날레>가 11번째 행사로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41일간 청주 문화제조창C와 청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미래와 꿈의 공예-몽유도원이 펼쳐지다'라는 주제로, 지난 10번의 행사로 다져진 내공과 성숙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보태 공예의 본질과 아름다움에 더욱 집중하고자 했다. 또한, 행사장이 옛 연초제조창이 공예 클러스터로 거듭난 뒤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예비엔날레인 만큼 지속가능한 공예도시 청주로 도약할 거점이 되고자 한다.



5개 테마 기획전 - 공예의 몽유도원을 펼치다.

본전시인 기획전은 5개의 테마로 진행된다. '생명의 방', '신들의 이야기' 2개의 소주제로 구성되는 <기획전 I>에는 인도 라딧 칼라 아카데미(국립미술관)의 전 수장 림 빨라니얌반을 비롯해 나이지리아의 능고지 오메제, 한국의 김창겸, 심재천 등 14개국 1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공예의 미래와 꿈을 선보인다. <기획전 II-꿈과 환상>은 동부창고를 무대로 삼아 새로운 공예가 바꾸는 인간의 삶과 미래를 엿보게 한다. 전시공간을 넘어 청주의 역사문화공간까지 공예의 영역을 확장한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사적 제415호인 정북동 토성을 무대로 한 <기획전 III-꽃과 인간>은 다양한 설치작품으로 문화유적지가 가진 역사적 가치

를 공예로 재조명한다. <기획전 IV-빛의 유토피아> 역시 조선후기 충청도 병영의 관청으로 추정되는 울량동 고가를 배경으로 한 프로젝트로, 청주의 역사·문화를 스토리텔링한 미디어 작품과 VR작품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예술체험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전 V-청주에서 평양까지>는 옛 청주역사전시관에서 펼쳐진다. 1921년에서 1968년까지 청주 경제의 부흥을 이끈 옛 철도역을 기점으로 2019년 청주와 평양을 문화로 잇는 프로젝트로, 북한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부터 북한여성의 내면을 포착한 작품까지 평화에 대한 문화적 염원이 담긴다. 여기에 옛 연초제조창이 자리한 안덕별 일대의 빈집들을 활용한 특별전 <안덕별 빈집 프로젝트>와 전국미술협회 회원들과 연계한 <정북동 토성-플래그 아트>까지 더해지면서, 올 비엔날레의 주제처럼 청주시 전체에 '공예의 공유도원'이 펼쳐질 전망이다.

10.8-11.17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 및 청주시 일원

3 창극과 경극의 서로 다른 세계의 만남, 국립창극단 <패왕별희>

창극과 경극의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새로운 미학을 탄생시킨 레퍼토리 '패왕별희'를 오는 11월 9일(토)부터 17일(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올린다. 창극 '패왕별 창극과 경극의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새로운 미학을 탄생시킨 레퍼토리 '패왕별희'를 오는 11월 9일(토)부터 17일(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올린다. 창극 '패왕별희'는 전통을 바탕으로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국립창극단과 서양 고전을 경극 양식과 접목해 전통극의 현대화에 앞장서는 우수귀 연출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각각 소리 하나로, 손끝 하나로 온 세상을 표현한다는 창극과 경극은 놀라운 조화를 이끌어내며 그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작품 속 관소리의 내적 울림과 경극의 외적 상징은 다소 생경하지만, 충돌이 아닌 공존을 모색하며 이내 보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이끌어낸다. 대만 최고의 배우이자 연출가 우수귀를 비롯한 국내의 최고의 예술가들이 힘을 모았다. 장르를 넘나드는 소리꾼 이자람이 소리와 음악을 만들고, 세계적인 아트 디렉터 예진텐이 의상 디자인을 맡았다. 창웨이웬 무대 디자이너, 조수현 영상디자이너, 마선영 조명디자이너는 삶과 죽음, 허와 실을 넘나드는 무대 미학을 선보였다. 이번 재공연을 위해 음악을 세밀하게 다듬고, 영상과 조명 등 일부 미장센을 수정해 완성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1.9-17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4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김일구의 적벽가'

'국립극장 완창판소리'가 11월에도 계속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전수교육 조교이자 70여 년간 국악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 온 김일구 명창이 11월 23일(토) 하늘극장에서 박봉술제 '적벽가'를 완창한다.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김일구 명창은 판소리가 취미였던 아버지를 따라 8세부터 자연스럽게 소리를 시작했다. 공대일 명창에게서 ‘흥부가’를 배우며 기량을 쌓던 중, 변성기에 접어들어 성대에 무리가 생기자 기악 연주로 눈을 돌려 장월중선에게 아쟁을, 원옥화에게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배웠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봉술 명창을 찾아 ‘적벽가’를 사사하며 피나는 판소리 발성 훈련을 거듭한 끝에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김일구 명창은 소리뿐만 아니라, 아쟁과 가야금 연주에도 능한 국악계 팔방미인으로 꼽힌다. 1979년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 장원에 이어 1983년에는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받았고, 뛰어난 소리 기량을 인정받아 199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되었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에서 보유자의 전승 활동을 돕는 역할이다.

‘적벽가’는 중국 고전소설 ‘삼국지연의’ 가운데 ‘적벽강 싸움’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고음 영역이 많고 풍부한 성량이 필요해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가창의 난도가 가장 높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유비·관우·장비·조조 등 영웅들의 호방한 소리를 통성으로 불러야 해서 웅만한 공력을 갖추지 않고는 부르기 힘든 작품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동편 계열에 속하는 명창들이 ‘적벽가’를 즐겨 불렀는데, 이번에 김 명창이 부를 박봉술제

‘적벽가’ 역시 또렷하고 굵은 저음이 특징인 동편제 소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김일구 명창은 성음이 분명하고 상·하청에 두루 능

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적절한 발림으로 판을 끌어가는 솜씨 또한 상당한 경지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자룡 활 쓰는 데’ ‘적벽대전’과 같이 박진감 넘치는 대목을 비롯해 ‘새타령’ ‘군사 설움타령’ 등 처연한 아름다움을 지닌 ‘적벽가’를 원숙한 경지에 오른 80세 대명창의 소리로 만나 볼 기회다. 고수로는 김청만·이태백이 나서고, 해설·사회는 유영대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국립극장 완창판소리는 1984년 시작된 이후 최초·최장수·최고의 완창 무대를 고집해온 명성에 걸맞게, 2019-2020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에는 당대 최고로 손꼽히는 명창들과 함께 그 역사와 권위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11.23 3pm 국립극장 하늘



고시계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예술전문지
더무브 MOVE 와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공연 및 더무브 구독 문의: 02.523.7356